

##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힐링여행 '한가득'

△광양 도립미술관=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의 예술성과 현대미술의 흐름을 연결하는 전남 도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이다. 옛 광양역 부지에 들어선 미술관은 역사적 공간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현대미술과의 교류전을 꾸준히 열어 지역 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예술과 감성이 흐르는 여행을 원한다면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해남공룡박물관= 해남공룡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향리 공룡 발자국 화석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공룡박물관이다.

400여점이 넘는 공룡 관련 화석과 모형이 전시돼 있으며, 실제 크기의 공룡 조형물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야외 공룡공원에서는 공룡과 익룡, 새의 발자국 화석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생생한 학습 체험이 가능하다. 실내외로 이어지는 전시 공간은 놀이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공룡을 사랑하는 어린이와 아이 손을 잡은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주는 곳이다.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은 46년 지구의 자연사를 인증하는 공룡화석, 곤충식물, 조류, 포유류, 어류, 해양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다. 공룡 화석과 해양 피씨류, 고대 생물 등 다양한 전시물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흥미로운 체험을 선사한다. 상설전시 외에도 도슨트 해설과 특별기획 전시가 운영돼 교육적 가치가 높다.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역사를 즐겁게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할 만한 명소다.

△국립나주박물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고고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으로 고분문화실, 어린이박물관, 실감콘텐츠관으로 구성돼 있다. 도심이 아닌 전원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이다.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전시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어 조용한 분위기에서 편리하게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 오는 15일 녹동항 바다 정원 일원에서 설 귀성객과 군민, 관광객을 위한 드론쇼 특별공연과 해상 불꽃쇼를 선보인다. 공연은 상설 공연보다 2배 많은 1500대 규모의 드론을 활용해 떡국, 웃나들이, 까치, 복주머니 등 설 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연출할 예정이다. 드론쇼와 연계해 녹동항을 찾은 방문객에게 더욱 다채로운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후 7시와 8시 20분, 두 차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순천 낙안읍성= 순천 낙안읍성에는 총 길이 1420미터의 견고한 석성이 넓은 평야지대를 감싸 안는다. 이곳은 108세대가 실제 생활하는 전통 마을로, 초가집의 정겨운 지붕선과 토방, 뒷마루 등 남부지방 고유의 주거 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을을 거닐면 고즈넉한 옛 분위기 속에 시간의 흔적을 느낄 수 있으며, 오랜 역사를 품은 객사나 노거수 은행나무 등 여러 문화재가 마을의 깊이를 더한다. 관리가 잘 돼 있어 편안하게



### 도립미술관·해남공룡박물관

### 아름다운 풍경 등 불거리 풍성

###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될 듯

### 영광 백수 등 드라이브 명소

### 진도 세방나조서 낙조 감상

### 곡성 녹동항, 화려한 드론쇼

### 빠삐용ZIP, K콘텐츠 명소

### 이한영 차 문화원, 다도체험

### 완도해양치유센터서 힐링도



게 들려볼 수 있으며, 민속 행사와 축제가 열릴 때면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

달진에 소원쓰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인근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해볼 수 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해양자원을 활용해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신지면에 위치한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16개 테라피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과 해수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설 명절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해양문화치유센터와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 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 민속놀이 체험 존'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완도산 해초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15일과 16일에는 해양치유센터 흥보관에서 미술 공연 '힐링 매직쇼'가 하루 두 차례(오후 12시 30분,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명절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관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서는 '만원의 치유'(기본 2개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이한영 차 문화원= 이한영 차 문화원은 차를 만드는 곳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현대식 카페 '배운차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출산의 야생찻잎으로 잎차와 둥어리차를 만들어 강진 차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직접 제다와 다도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백운옥판차를 비롯해 다산 정약용이 마셨다는 떡차도 맛볼 수 있다.

△빠삐용 zip= 전남 장흥군(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빠삐용Zip'(빠삐용집)이 최근 국내 주요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활용되며 K콘텐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빠삐용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물 교도소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제작진과 배우들 사이에서 암도적인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작품 촬영 이외에도 극중 장면과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스토리체험형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안 톰머리해수욕장= 톰머리해수욕장은 무안읍에서 서쪽으로 8km정도 떨어진 망운면 피서리에 위치해 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간조 때 펼쳐지는 넓은 백사장은 2km, 폭 100m에 달한다. 백사장은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한데다 바닷물도 깨끗하다.

드넓은 백사장과 200년된 곰솔이 숲을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하늘과 바다가 불개 물드는 아름다운 낙조가 유명한 곳이다. 또한 해수욕장 긴 백사장을 따라 즐비한 횟집에서 싱싱한 생선회를 맛볼 수 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전망대= 백수해안도로는 푸른 바다와 광활한 갯벌. 굽이굽이 이어지는 기암괴석, 그 위로 쏟아지는 불타는 노을이 황홀한 풍경을 연출하는 서해안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이곳에는 팽이갈매기 날개 조형물(작품명 '끝없는 사랑(Endless Love)')이 설치된 노을전망대가 있다.

노을전망대 스카이워크를 걸어보면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함과 눈 앞에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야간에는 경관조명이 더해져 밤이 되면 날개 조형물이 다채로운 색으로 빛난다.

△진도 세방나조= 세방나조는 기상정에서 한반도 최남단 제일의 낙조 전망지로 선정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비경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낙조지이다. 세방나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푸른 물결과 다도해의 오밀조밀한 섬의 경관이 단연 압권이다.

해 질 무렵에는 섬과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일몰의 장관은 주위의 파란하늘을 단풍보다 더 블은 빛으로 물들인다.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해가 떨어지는 모습이 달라 몇 번을 와도 늘 새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세방나조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설 연휴에는 전남으로 여행오셔서 천혜의 자연, 맛있는 먹거리, 흥겨운 이벤트를 한껏 즐기시고, 고향의 정취도 느끼며 가족친지들과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